

문화재연구 국제교류현황과 과제 : 총설

최 몽 룡*

문화재연구소의 설립취지중의 하나가 문화재의 학술적 조사연구에 관한 국제교류이다.

문화재연구소 설립 당시의 모델은 일본의 東京과 奈良 국립문화재연구소이었기 때문에 일본과의 학술적·인적교류는 일본이 단연 우세하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설립이후 30년동안 일본의 관계기관에 안 다녀온 한국의 연구소원이 거의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은 우리나라와의 수교가 10년 이내의 짧은 기간이어서 일본보다 그 교류의 정도가 덜하다. 다행히 문화재연구소에서 1992년 이래 「문화재연구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여 1998년까지 7차가 열렸다. 대회내용은 문화재연구의 국제학술대회 개최와 이를 통한 특정분야 전공자의 연구결과의 발표, 토론과 자료의 인쇄와 이로 인한 인적교류 등이 주목적이었다. 회의개최 시기는 매년 11월 말경이었으며, 그 내용은 구석기시대에서 시작하여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를 거쳐 현재 철기시대연구에 관한 학술발표를 진행중이다. 거의 대부분의 참가학자들은 일본, 러시아, 중국인들이었다. 그 숫자도 약 30여명에 이른다. 회의에서 주로 언급된 것은 한국문화의 기원, 극동아시아 속에서의 한국문화의 위치파악과 아울러 상호 고고학 발전수준의 비교였다. 다시말해 이 회의를 통해 세계 각국의 고고학적 연구 성과와 우리 것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고고학 연구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었다. 그리고 이 대회의 원류를 비롯한 한국문화의 위상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 대회는 한국고고학의 연구성과를 외국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교류범위와 내용은 현재까지의 진행결과를 두고 볼 때 극동지역에 국한하고 있다. 앞으로 범위를 넓혀 歐·美 제국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최근의 고고학 이론과 방법론도 받아들일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일본·중국·미국 그리고 러시아와의 구체적인 학술·문화·인적 교류에 대해서는 김재현(구주대박사과정), 박양진(충남대 교수)와 이현종(목포대 교수)의 글에서 언급된 것이다.

* 서울대 교수·문화재위원